SK에너지, 미얀마에 코로나 진단키트 기부

SK에너지·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약 5만달러 상당 키트 4000개 전달

SK이노베이션의 석유사업 자회사 SK에너지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이 미얀마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기부했다.

SK에너지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지난 9일 해외 주요 비즈니스 거점 중 하나인 미얀마에 약 5만 달러 상당의 코로나19 진단 키트 4000개를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미얀마는 최근 확진자 176명, 사망자 6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진단 키트 부족으로 검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번에 기부한 키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승인을 받은 국내업체 바이오세움의 제품으로, 이미 미국·유럽·동남아 등 해외로

지난 9일 미얀마 현지 진단 키트 증정식에서 (왼쪽부터)김태진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미얀마 사업 담당 PL, 아웅 슈에 BOC 회장, 이상화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저딴툰 미얀마 보건체육부 산하 의학연구소 국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수출되고 있어 품질·성능 모두 입증됐다.

SK는 지난 8일 미얀마 항공편을 통해 진단 키트 4000개를 현지로 보냈다. 주 미얀마 한국대사의 협조로 별도 항공 탁송 비용 없이 배송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미얀마 보건체육부 산하 의학연구소에서 미얀마 정부, 주미얀마 대사관, 미얀마 석유유통그룹 BOC,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단 키트 증정식도 열렸다.

한편 SK에너지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지난해 7월 미얀마 1위 석유유통그룹인 BOC의 지분을 각각 17.5%씩, 총 3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인수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서석원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사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얀마도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냄과 동시에 양사 비즈니스, 나아가 양국 우호 관계도 더욱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LGU+, 대학생 서포터즈 '유대감' 언택트 발대식

LG유플러스는 대학생 디지털 콘텐츠 기획·홍보 대외활동 유플러스 대학생 감성 서포터즈 '유대감' 6기에 최종 선정된 20인이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발대식을 실시하며 본격 활동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유대감'은 '유플러스 대학생 감성 서포터즈'의 줄임말이다. 2017년 10월 1기 활동을 시작으로 20대 시각의 독창적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6기 발대식은 코로나19 전파 예방을 위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활용한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8일 오후 4시부터 약 90분간 진행됐다.

온라인 발대식은 LG유플러스 광고모델로 활동중인 영화배우 마동석과 김환 아나운서의 유대감 6기 활동을 응원하는 영상메시지로 시작됐다.

유대감 6기는 앞으로 6개월간 LG유플러스의 차별화된 서비스, 마케팅 활동 및 자유 주제를 소재로 개인 및 팀 별 SNS 콘텐츠를 제작해 유대감 공식 인스타그램, LG유플러스 공식 유튜브 채널, LG유플러스 공식 블로그, 유대감 공식 포스트에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대감 6기에게는 매월 활동비와 LG유플러스 신규 서비스 체험, 브랜드 행사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또 활동 기간 중 마케팅 실무자의 멘토링이 병행된다. 종료 후에는 전원에게 공식 수료증을 수여하며, 최우수 활동자와 활동팀에게는 별도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코로나19와 부동산시장

기자 수첩
정 연 우
〈파이낸스&마켓부〉

최근 며칠간 서울 곳곳의 번화가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자 한 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상권도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오는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시점이 끝나기 전까지 그간 미뤄진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안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했던 건설사들도 5월 분양 시즌을 맞아 하나 둘씩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 전반에 끼친 피해는 컸다. 특히 자영업자의 몰락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착한 임대료' 운동을 펼치는 등 재난 극복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하자 서울 자치구들이 비상 대응에 나서며 부동산 시장에도 다시 어둠이 깔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가 파악한 조사 대상자는 총 7222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출입자 명단의 1946명을 파악했다고 밝혔으며, 용산구가 추가로 5276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34명으로 28일 만에 30명대로 진입했다. 소수의 방종이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를 연장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였다. 급매물이 나와도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부동산 시장은 매수문의가 없어 거래절벽 현상을 이어갔으며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해외수주가 급감한 건설사들은 2분기 실적을 바라보고 한 숨 쉬었으며 재건축 조합들도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기했다.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시작으로 호가는 2억~4억원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경제 붕괴로 부동산 시장까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안정을 위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ywj964@

오늘의 운세

5월 11일 (음 4월 19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나이가 있으니 장사도 예전과 같지가 않다. **48년생** 친구의 부음을 듣는다. **60년생**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는 것이 상책. **72년생** 성공이 가장 좋은 교훈이다. **84년생** 선봉에 나서다가 시기 질투를 받으나 그래도 도전.

소 **37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뤘던 일을 마무리. **49년생** 치우치지 말고 가족 간 화목을 우선시. **61년생** 기회가 있으면 망설이지 마라. **73년생** 금전과 사랑이 따르는 하루. **85년생** 일이 잘 풀려도 의외의 복병은 있다.

호랑이 **38년생**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돕자. **50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있어 해결. **62년생** 중심을 잘 잡아야 원망을 듣지 않는다. **74년생** 남쪽으로 출장 수가 있다. **86년생** 이기적인 마음이 연인에게 상처를 준다.

토끼 **39년생** 자손탄생으로 가족이 활기차고 화목이 넘친다. **51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하고 성실로 극복. **63년생** 부러움을 살만한 기쁜 일이 생긴다. **7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공연한 방황인가. **87년생** 인맥이 도움을 주어 성사된다.

용 **40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52년생** 동분서주해봐야 이득이 없으나 그래도 움직여라. **64년생** 조상의 한이 서리면 슬픈 일 제사를 지내야. **76년생** 형편과 능력에 맞춰서 행동. **88년생** 망설임이 행운을 친다.

뱀 **41년생** 달리려고만 하지 말고 돌아도 보자. **53년생** 남의 말만 듣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65년생**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77년생** 부부간에 견해 차는 늘 있는 것 이혼이 웬 말인가. **89년생** 소띠와의 만남이 있을 듯.

말 **42년생** 차가운 지성과 따듯한 감성을 찾자. **54년생** 이웃 간에 돕는 것이 인지상정. **66년생** 동료의 작은 실수는 언젠가는 나도 만들 수 있다. **78년생** 목이 마르면 물을 파는 노력을. **90년생** 이성간에 삼각관계를 형성하지 마라.

양 **43년생** 내 고집만 피우면 식구들도 외면. **55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67년생** 양손에 떡을 들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도록. **79년생** 어려운 일은 스승님의 도움으로 극복. **91년생** 운전 때에 늘 양보심을 갖도록 해야.

원숭이 **44년생** 자식의 도움으로 재물의 어려움이 극복. **56년생** 산에 들에 벌 나비가 많으니 유혹도 발생. **68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물건 잘 챙겨라. **80년생** 상사의 도움으로 이득이 발생하니 감사. **92년생** 요행을 바라지 않으면 운이 온다.

닭 **45년생** 나이가 드는 것이 서글프다. **57년생** 교양을 쌓는 것은 취미와는 다른 고차원. **69년생** 시샘하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자. **81년생** 자녀에게 정서적 배려는 나한테서 나오니 지성을 갖추자. **93년생** 대기업에 취직 수가 있다.

개 **46년생** 자녀에게 부모의 존재는 살아 있다는 것이 힘이다. **58년생** 언쟁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70년생** 배우자의 슬픈 일은 잊어야 한다. **82년생** 내 것이 작아 보여도 소중한 것이다. **94년생** 유아독존적 이기심을 버려라.

돼지 **47년생** 동상 걸린 발을 담그는 격으로 힘들다. **59년생** 오늘 준비를 꼼꼼히 해야 내일이 편하다. **71년생** 공들인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83년생** 길을 나서려는데 비가 오니 우산이 없다. **95년생** 목표를 정하여 우선 전진하자.

김상회의 四季

물처럼 산다는 것

노자의 도덕경에는 상선약수라는 말이 나온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이다.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는 않으며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물처럼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만 물처럼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물은 잠시도 쉬지 않고 흘러가면서 먼저 가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해치지 않는다. 또 특정하게 갖춘 모양이 없어서 어디에나 잘 어울린다. 자기의 이익을 더 취하려 기를 쓰는 사람의 심성으로는 닮기 어렵다.

노자는 물이 지닌 수유칠덕이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일곱 가지는 겸손 지혜 포용력 융통성 인내 용기 대의이다. 일곱 가지를 모두 따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중에 두 가지만 실천해도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는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지혜이다. 어느 한쪽만 바라보고 그쪽에서 빛이 보이지 않으면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의 운세는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곤 한다. 자기가 꾀한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땐 한쪽에 매달리지 말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다른 하나는 깨끗하지 않은 물도 안아주는 포용력이다. 포용력을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관대함을 일컫는다. 보통은 좋은 운세만 누리고 싶어 하고 나쁜 운세는 회피한다. 자기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다.

나쁜 운세 역시 자기의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포용하면 그것을 토대로 다시 일어서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매일 물과 만나지만 물에서 본받아야 할 게 있다는 생각은 못 하는 것은 아닌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44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544호